

한국 YWCA

2019년 11·12월호
November·December
Vol.564

“ 한국YWCA연합회 2020년도 정기총회 ”

내용 공천위원·실행위원 인준, 임원 선출, 2020~2021 정책채택
2020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일시 2020년 2월 4일(화)~5일(수)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문의 02-774-9702 koreaywca@ywca.or.kr

 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군산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특집

2019 한국YWCA 10대 뉴스

포럼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

이달의 현장

제29회 YWCA 세계대회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미투’ 운동 이후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서사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YWCA 회원국 총회



1979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YWCA 세계대회에서 김영정이 세계 YWCA 실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



1995년 열린 세계YWCA 대회에는 90여 개국에서 대표 127명과 국내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YWCA는 1855년 영국에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시작해 1894년 세계YWCA가 창설되었다. 국제적 운동으로 발전한 YWCA는 초창기 4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이 1955년에는 67개국의 국제 조직체로 발돋움하였다.

세계YWCA는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아메리카, 태평양의 110여 개 회원국이 연합하는 협의체로서, 4년마다 열리는 YWCA 세계대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YWCA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정하고 회장과 실행위원을 선출한다. 각 회원국들은 대회를 통해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회원운동으로서의 유대를 탄탄하게 강화하고 세계적인 사업 등을 결정한다.(1975년까지 세계YWCA협의회로 번역하다가 그 이후부터 'YWCA 세계대회'로 부르고 있다)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YWCA운동은 1894년 세계YWCA 결성 이후 피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사업, 난민 구제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정의와 평화, 인권과 자유, 건강보호, 문맹퇴치, 환경, 경제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존엄해야 할 가치를 지키고 증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펼쳐온 세계YWCA 활동은 세계대회에서 채택되는 정책서(Statement of Policy)에 잘 나타나 있다. 세계YWCA는 세계대회를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 등 5대륙을 돌아가면서 열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1947년 중국, 1967년 호주에서 열렸으며 1971년부터 싱가포르가 대회 유치를 시도하여 12년만인 1983년에 성사시켰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대회 유치를 시도하다가 1995년 아시아지역에서는 네 번째로 세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한국 YWCA는 초창기 때부터 세계YWCA에 가입하여 YWCA의 이상을 실천하는데 기여했다. 세계YWCA의 정회원국으로서 세계대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YWCA가 정하는 정수에 따라 회장, 총무를 포함한 정대표와 약간의 방청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세계YWCA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각국YWCA가 개최하고 있는 정기총회의 진행과 비슷하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YWCA는 가장 오래된 세계 조직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성을 바탕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각 지역, 국가를 통해 세계적인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 생활의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130년 전에 세워진 후 시민사회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장이 되고 있다.

2019. 11.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한국YWCA 회관은 196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중심지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었으며, 한국YWCA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디자인 박진화)

2020년 1·2월 주요일정

1월 2일

신년예배

1월 8일

2020년 Y-틴 전국협의회

1월 17일~20일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2월 3일~4일

신임회장연수

2월 4일~5일

2020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제55권 제8호 통권 564호

2019년 12월 19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04 **이달의 생각**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주님 | 한미미
- 05 **성탄예배** 모든 '나'를 이 예배에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 편집실

특집 '2019 한국YWCA'

- 07 ① 사진으로 보는 2019 | 편집실
- 11 ② 2019 YWCA 10대뉴스 | 편집실

- 17 **포럼**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 | 편집실
- 20 **탈핵**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시대, 위기의 책임을 묻는다 | 김현우
- 22 **여성** 여성혐오와 젠더에 기반한 폭력 | 허민숙
- 24 **청년토크** 알쓸·신잡 | 대학·청년Y

- 26 **이달의 현장①** YWCA 세계대회 | 홍현정, 백혜진, 이수진
- 34 **이달의 현장②** 세계YWCA-YMCA 국제친선 연합예배 | 김은영
- 35 **이달의 현장③**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 편집실
- 38 **이달의 현장④** Y-틴 정책토론회 | 이예림

- 4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미투' 운동 이후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서사 | 오수경

- 42 **이달의 포커스** 군산YWCA 창립총회 | 박은정

- 43 **연합회 소식**
- 47 **회원YWCA 소식**
- 56 **목차색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주님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부회장


제29회 YWCA 세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기치 못한 반전의 스토리들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위기는 세계YWCA 현장에서 단체의 핵심 정체성인 '성부 성자 성령'을 삭제하고 '모든 종교와 전통을 환영한다'는 개정안의 상정이었다. 특히 유럽, 북미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층에는 이미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했다. 적지 않은 회원국들이 이 기독교 정체성이 YWCA운동에 있어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며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사고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보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분이 예수님 아니셨는가? 세리, 병든 자, 창녀, 이방인. 그 시대에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포용적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는가? 그러하기에 YWCA의 'C'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YWCA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반을 지키는 것이었다. 세계YWCA 부회장 후보로 나온 나로서는 유럽, 북미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층의 표를 잃을 수 있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세계YWCA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국인, 여성, 엄마, 아내, 딸, 부회장 등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투표 전날 아시아지역 YWCA회장·사무총장들이 모여 뜻과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크리스찬 C 정체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YWCA의 참주인 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여정이 되었다. 드디어 투

표날, 아시아 YWCA의 대표단들은 발빠르게 현장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아시아지역 YWCA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극적인 순간이 되었다. 16개국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12개국이 연대하여 YWCA 기독교 정체성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두 번째 위기는 마지막날 세계YWCA 결의안을 결정하는 시간. 유일하게 한국YWCA만이 결의안을 제안한 상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 협정지지, 경제제재로 인해 피해 받는 북측 여성과 아동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 YWCA가 결의하는 내용이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관련된 내용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분류되기에 채택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계총회 역사상 단 한 명의 반문없이 총 226표 중 찬성 217표, 반대 1표, 기권 8표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순간이었다.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 세계YWCA 109개 회원국들이 4년동안 공식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결의안하기에 그 감동과 감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제30회 세계대회까지 'C' Christian의 멋진 Color로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Kingdom builder) 평화를 이루는 자(Peacemaker)가 되며, 담대히(Bold) 세상의 권력구조를 변혁시키는(Transform the Power structure) 한국YWCA, 아시아지역YWCA 그리고 세계YWCA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한국YWCA 지도력을 대표하여 4년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세계YWCA 부회장의 본분을 지역(region to region)과 세대(generation to generation)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더 기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한다. 



모든 '나'를 이 예배에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2019 YWCA 성탄예배

2019 YWCA 성탄예배가 12월 5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드러졌다. 크고 작은 솔한 갈등과 대립, 사건들로 가득 찼던 한해를 되돌아보며 2천년 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평화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지금 이 땅에서 함께 할 '이들을 세우기'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명예연합위원, 회원YWCA, 활동가들 9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성탄예배는 세계YWCA-YMCA 국제친선주간과 제29회 YWCA 세계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젊은 여성'을 주제로, 202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YWCA가 젊은 여성을 주제로 세우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배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고자 했다.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의 "잃어버린 나, 상처 입은 나, 외면당한 나, 부수어진 나, 주변인 된 나, 혐오당하고 배척당한 나, 차별 당하고 강도 당한 나, 모든 '나'를 이 예배에 환영하며 초대합니다"라는 인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인도자와 회중은 '여성시편 92편'을 교독하며 "하나님은 교회여성들을 평등한 터 위에 세우시고, 심지가 굳은 제자로 부르심"을 믿고, "젊으나 늙으나 교회 여성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질서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특히 '젠더평등을 위한 권력구조를 바꾸는 젊은 여성을 만나다'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젠더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갖가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얼굴'을 이

은희 대학·청년Y 회원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 '도전의 얼굴'을 읊조린 Y-틴 회원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시도해가는 '협력의 얼굴'을 최선화 대학·청년Y 회원이 발표했다. 최선화 회원은 "젠더평등한 사회는 혼자 만들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활동해야 한다. 대학·청년Y와 Y-틴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김예지 대학·청년Y 회원이 "사회에서 차별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로 해주실 것"과 "교회 내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라지고 평등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말씀선포에서 광우정 목사(목동 평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마태복음 6장 9-10절, 16장 18-19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광 목사는 2019년 기준 최연소 현장 여성 목사로서, 한국YWCA는 이번 성탄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YWCA 예배에 젊은 청년 여성 목사들을 강단에 세워갈 예정이다. 아직 한국의 모든 교단

2019 YWCA 성탄예배



설교 중인곽우정 목사(목동 평광교회) '도전의 얼굴을 육예진(왼쪽) Y-틴 회원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시도해가는 '협력의 얼굴'을 최선화(오른쪽) 대학-청년 Y 회원이 발표 중이다.

이 여성에게 목사직을 허락하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성차별주의적 한국사회의 강고함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고, 한국 교회인 우리 인간이 교회직제를 성별분업체제 틀 안에 가두어 둔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배경에서다.

성탄예배 참석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지도자'로 칭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부르심이다. 우리 삶 속에서 빛나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지도자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10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악령 들린 사울이 다윗을 불러 수금과 비파를 타게 했을 때, '사울이 낮고 악령이 떠나더라'(사무엘상 16장 23절)는 말씀이 나온다. 이는 다윗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다. 다윗은 거룩한 통로였을 뿐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 셋째, 기도로 순종하는 지도자로 부름 받았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10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며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YWCA로 부르신 목적대로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맺은 후, 이어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일하는 여성 활동가 'Y-LAB'을 위해 봉헌했다. 마지막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정의, 평화, 생명세상을 이루는 젊은 여성들에게 지지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적어 장식한 후, 찬양과 축도로 성탄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 '사림과 나눔'에서 한영수 회장이 성탄 축하인사를 전했고, 조철숙 북부지역위원장(인천YWCA 회장)가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성탄의 시 <12월의 기적>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

성탄의 시

12월의 기적 김재화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놀란 듯 마시라
홀짝 떠난 열한달 희노애락의 삶이
보고 듣고 사랑하고 분노했던 일들도
우리를 정화(淨化)시키는 기적의 달

작은 일과 큰 일 구별하지 못한 날들도
마치 바다의 거친 파도는 빛물에만 일듯
그 아래 조용한 평화는 불변의 아름다움이니

우리 걸보습에 보이지 않던 따뜻한 가슴 열면
푸른 잎 떨어져도 그림 같은 나무들의 모습 보이고
한 해를 저렇듯 버리고 기도 희망의 기억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은총은 변치 않은 자연의 소리에도
급변하는 도시의 모습에도 볼 수 있으니

넓은 들에서 수고하며 견어 들인 작물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농부의 그림 떠돌리는
축복의 달, 아~ 우리의 12월 기적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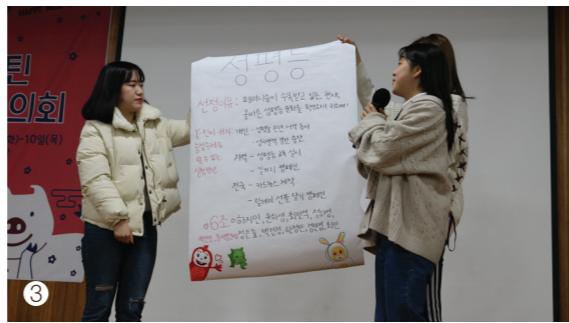


'세계와 함께' 2019년을 돌아보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9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YWCA를 빛낸 사람들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들여다본다.

① 제29회 YWCA세계대회 참가자들 ② 1월 11일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한국 Y대표단이 '문화의 밤' 공연을 펼치고 있다. ③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는 여수YWCA 회원들 ④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Y 신임회장이 특별찬송을 하고 있다.





① 3.11 나비퍼레이드에서 탈핵을 염원하며 연합회와 회원Y 활동가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② 6월 22일 경주에서 열린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에 참가했다. ③ Y-틴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성평등'을 2019년 운동주제로 제안하고 있다. ④ 9월 20일 '영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에게 문다'에서 참가자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⑤ 6월 27일 아시아YWCA지역회의의 참가자들이 '검은 목요일'을 맞아 여성폭력근절을 외쳤다. ⑥ 4.27 'DMZ민+평화순잡기'에서 평화의 조각보를 이어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⑦ 3월 11일 CSW63에서 다른 국가 참가자가 한국Y청년대표단에게 질문하고 있다. ⑧ 대학Y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정대표들이 거수표를 들고 있다. ⑨ 8월 7일 2019 히로시마 평화순례에 참가한 Y-틴이 히로시마 원폭 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⑩ 6월 28일 아시아Y청년포럼 '세이프 스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⑪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의 참가자들이 단 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9 한국YWCA 10대 뉴스

4.27 DMZ 평화의 인간 띠잇기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염원한 한해였다. 한편, 미투운동은 사회 곳곳에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유리천장과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탈핵운동에서도 2018년 '에너지전환 원년'을 선포한 후 에너지전환 교육 강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확산하면서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이루는 초석을 다졌다. 제29차 세계대회에서는 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결의안이 통과되어 세계YWCA 가입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Y-틴 드립십 프로그램과 로컬라이즈 군산 Y-LAB을 통해 한 발 도약한 청소년 청년운동을 되돌아보며 2019년에도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해 애쓴 한해였음을 10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본다.



① 10월 1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2019 태백산' 순례자들이 태백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 8월 5일 북부지역 Y-틴 회원 대회에서 'SET OUR DREAM'을 외치는 회원들. ③ 8월 14일 대학·청년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회원들. ④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조형 고문과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감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⑤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에서 대상을 수상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정지현 감독과 권도는 작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한반도 평화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하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던 한 해로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사회적 관심과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DMZ(민)+평화손잡기'에 YWCA 회원을 비롯한 국내외의 시민들은 물론 해외 동포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의 인간띠잇기를 통해 한반도 분단 상황과 8천만 겨레의 평화의 염원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힘을 모아 미국 의회 및 국제 인사들을 향한 시민공공외교에서 힘을 발휘했다. 평화 통일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다짐하는 '여성평화순례'는 2017년 한라산을 시작으로 지리산을 거쳐 올해 태백산에서 이뤄졌다. 회원Y 청년과 일반 대표, 탈북민, 고려인, 조선족 등 총 2백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평화선언에 동참했다. 이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진행된 '길위의 평화

포럼'은 회원Y 대표들과 탈북민들이 다섯 차례의 포럼과 깊은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와 지혜를 넓히는 평화의 징검다리를 놓아왔다. YWCA 세계대회에서는 한국YWCA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 호소' 결의문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어, 세계YWCA와 109개 회원국이 한반도 평화 협정을 지지하고 유엔제재 완화와 대북지원에 협력하기로 결정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유엔제재와 비핵화의 협상 앞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문이 쉽게 열리지 못하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여성 1천인 서명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 전개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연대와 지원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



2 성평등 사회,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 위한 노력 계속되다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미투(MeToo)운동은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채용부터 업무배치, 승진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문제로 그 해결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국YWCA는 창립 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의 경제자립을 중요한 과제로 다뤘다. 다양한 분야 여성직종을 개발, 직업에 대한 고질적

인 성차별 개념을 바꾸도록 노력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올해도 남녀임금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이 36개 회원YWCA를 중심으로 거행된, 행사부스 운영,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펼쳐졌다. 국회의원,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운동 현장, 취업을 앞둔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역할과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했다. 이를 위해 회원YWCA를 비롯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쉼터 실무자, 회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포럼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한국YWCA의 지역여성운동을 고민했고,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낙태죄',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강의와 포럼을 열어 자유롭게 이야기 되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한 깊은 토론을 시작했다.

3 청소년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운동 기틀 다지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면서, 에너지 전환사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YWCA는 올 초 에너지전환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교재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까>를 발행했다. 교재는 '에너지원의 변천,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정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총 7과로 구성되었으며, 중·고 교사 및 환경교육 강사로 이뤄진 집필진이 저자로 참여했다.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는 YWCA가 발행한 청소년 교재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회원YWCA가 각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미래 세대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식 확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4 전 세계 YWCA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4년마다 개최하는 제29회 YWCA세계대회가 11월 17일(일)부터 22일(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약 500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변혁하는 여성들'을 주제로 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세계YWCA현장 전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신념을 받아들일 것이다'는 헌장 개정(안)에 대해 기

개 참여 회원국 중 50개국의 반대로 기독신앙을 지켰으며, 19개국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한 '아시아YWCA지역회의'가 기반이 된 아시아지역의 연대와 협력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

5 아시아지역YWCA 네트워크로 아시아 이슈 공동대응하다



아시아지역YWCA에서 한국YWCA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 한국YWCA는 지난 6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아시아 12개국(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대만, 네팔, 일본, 말레이시아) 대표와 청년 10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아시아 여성의 경제적 역

량강화'를 주제로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아시아청년포럼'을 열어 아시아 여성청년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1월 일본 교토YWCA에서 열린 제10차 한일YWCA협의회는 '한국·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연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활동조직이 다수인 아시아지역YWCA는 16개국에 세계YWCA에 가입해, 세계YWCA 8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미, 태평양)중 역사와 규모, 활동 면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이 연대하여 아시아지역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6 Y-틴, 세계로 나아가다



한국YWCA는 젊은 여성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한일YWCA청소년협회, UN여성지위위원회(CSW), UN NGO컨퍼런스 등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세계YWCA '비전수립 2035' 목표에 따라 세대간 리더십을 만들고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변혁적 리더십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2019년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에 집중하기 위한 'YOUNG 글로벌리더십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 기금은 Y-틴 주도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Y-틴 드림십 프로그램(인도네시아)'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KRISTA MITRA 고등학교 학생과 한국 Y-틴 참가자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기획이 양국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히로시마 평화순례에 Y-틴 중앙임원(신연진, 김현정, 이소향 Y-틴 회원)이 참여함으로써 한국YWCA 청소년을 대표해 평화이슈를 알리고, 양국 청소년의 평화연대를 강화하자는 결의를 했다. 앞으로도 한국YWCA는 청소년이 일상의 이슈를 바탕으로 세계YWCA 청소년 회원들과 연대를 지속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지지하는 YWCA 청소년 운동이 될 것이다.

7 지속가능한 경제·금융교육을 향해 비상하다



YWCA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경제교육을 진행했다. 대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씽크머니는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2019년 현재 전국 28개 회원YWCA에서 2만5천여 명, 지금까지 총 5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모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그 중 창원YWCA는 지역

YWCA 최초로 지역과 연계한 여행 책자 제작에 관한 스토리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강사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들은 YWCA 자체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유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했으며, 작년에 개발한 '비긴어게인'에 이어 VR을 활용한 신용과 부채관리 보드게임 '구해줘 홈즈'와 성인여성대상 교육안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상에 맞는 내용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8 YWCA역사관 '이제'가 문을 열다



한국YWCA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올해 4월 한국YWCA연합회관 3층에 YWCA역사관 '이제'가 문을 열었다. 올 한해만 400여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길위의 평화포럼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모임, 복지기관협의회, 어린이집협의회, 씽크머니 강사 등 교육참가자들은 역사관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김은경(전 연합회 사무총장), 차경애(복지사업단 이사장), 최만자(연합회 위원) 세 명의 전시 해설도 진행했다. 최용신을 샘글로 보낼 때의 시대 상황, 첫 여성 도배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

YWCA어린이집의 역사 등 YWCA 역사는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 지난 6월 이곳을 방문한 대만YWCA 사무총장은 1995년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대회에 자신이 들고 왔던 선물이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가워했다. 내년에는 한국YWCA 서고에 쌓여있던 역사 자료들을 디지털화 한 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YWCA 아카이브가 문을 연다. 97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한국YWCA의 기록들을 사회와 공유해 YWCA 정신을 확산하고자 한다.

9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을 위한 청년들 로컬라이즈 군산 Y-LAB



YWCA 청년으로 조직된 와이랩컴퍼니(이하 와이랩 Y-LAB)가 청년혁신 도시 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에 선정되었다. 청년 창업교육과 혁신 활동을 통해 군산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YWCA 청년연구소 와이랩은 공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고, 군산 개북동에 첫 번째 실험적 공간인 '와이랩제1구역'을 오픈했다.

1931년 YWCA 교사로 샘골에 파견되어

농촌계몽운동을 펼친 최용신 선생님의 뒤를 이어, 군산에서 놀이문화를 디자인하고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와이랩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유는 YWCA 청년운동과 청년조직의 실험적 모델을 지역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와이랩은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YWCA 청년모델 개발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모범이 되고 있다.

10

Y가 나아가야 할 방향 탐색 미래사회 전망과 YWCA운동



한국YWCA 100주년을 대비하며, 변화하는 현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YWCA 운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9 YWCA 미래가치포럼'을 개최했다. IT 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발달이 인류문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던지며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인간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단체가 담론을 이끌어가기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생활양식과 소통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적 흐름에 따라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가 인쇄매체 중심의 소통방식을 미디어영역으로 확장하고자 '미디어소통위원회'로 개칭했다. 한국YWCA는 시대를 읽고 시대와 호흡하며 100주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



이태광 교수가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10월 2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3차 YWCA 미래가치포럼이 열렸다. 김은주 위원장(미디어소통위원회) 진행으로 이태광 교수가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3차 포럼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편지와 소셜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는 과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생각과 미디어를 연결시킨 최초의 이론가는 아마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문자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의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문자를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됨으로써 인간은 전혀 다른 문명의 차원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글(쓰기)은 원시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미디어다.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점에 이르는 편지의 형식은 오늘날 모든 미디어의 기본을 이룬다.

새로운 미디어 특성: 불확실성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편지라는 과거의 형식을 '소셜미디어'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음에 무료 문자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트위터의 기원을 상기해 보면, '소셜미디어' 역시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편지의 기본 양식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소셜미디어'는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 '사회'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은 편지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위해 발신하는 편지라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불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의 본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순수한 미디어성은 저널리즘으로서 뉴스와 방송이 내포하고 있던 ‘정보’의 매개로서 기능하는 미디어라는 원래의 속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무릇 저널리즘이라고 함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있었다. 현실이 사실의 총합이라는 실증주의 태도가 저널리즘에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현실은 사실에 우선한다는 세계관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현실에 맞춰 재조정되거나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인간 사유가 변화되는 시기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은 미디어의 변화는 곧 사유의 변화라고 보았다. 영화의 발명은 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화로 인해 인간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리얼리티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화는 판타지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환상의 자유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현실 자체로 전이되어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전이의 방식을 벤야민은 사유에 대한 미디어의 간섭이라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이라는 미디어를 매개로 인간의 사유가 변화되는 시기를 뜻한다. 디지털은 임의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의 단위에 들어맞게 데이터를 끊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숫자로 표기된다. 이 방식이 미디어에 적용될 때 대체로 신호 왜곡이 줄어들어 더욱 선명한 화질과 음성 재생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단위에 들어맞지 않는 데이터의 왜곡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탈중심화 ‘포스트미디어’

이런 디지털 기술의 정점에 인터넷 환경이 놓여 있다. 개별 제작자나 수용자의 차원을 서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라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인류 문명에게 제공했다. 게다가 인터넷 환경은 정보의 전달로서 미디어의 희소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콘텐츠의 상품 교환가치를 무효화한다. 누구도 자신의 화폐로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미디어의 탈중심화를 ‘포스트미디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근대의 미디어가 정보의 중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포스트미디어’는 이런 중심화를 해체하고, 개별 수용자들이 동시에 단순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재구성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보와 지식의 성격도 바뀌었다. 과거가 ‘탐험가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관광객의 시대’이다. 탐험가가 지리적으로 미답의 지역을 찾아가는 존재라면, 관광객은 이미 알려진 지역을 찾아가는 존재이다. 탐험가는 여행을 떠날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관광객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해당 여행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탐험가와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을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 자본주의가 미디어성과 만나다

지식생산의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경우는 확실히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배운 소수 엘리트’의 손에 들려 있던 지식생산의 능력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기술의 발달은 분명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런 민주화는 물질의 다양성이 표출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다양성 자체를 진보라고 불려온 것이 서양의 계몽주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술이 곧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생각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미디어성과 만나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튜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 유튜브는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들을 계승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 기술이

다. 한국 유튜브의 순간 접속자 수가 2018년 6월 기준으로 2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 미디어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소식이다.

물론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고 동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성 자체가 대중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급자가 콘텐츠의 공급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알아서 콘텐츠를 판단해서 수용한다. 결정권은 수요자에게 있고, 얼마나 많은 수요가 발생할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 금융 자본주의와 같은 ‘운’이 지배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술이 만들어낸 때끄러운 면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도약을 만들어낸다.

유튜브는 방송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작 방식이 사유화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적인 것은 아니다. 일단 인터넷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콘텐츠는 공유 가능해지고, 복제 가능해진다. 이 지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폭발력을 발휘한다.

유튜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다소 다른 차원을 가진 미디어로, 별 다른 방송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사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의 특징에 충실하다. 무엇보다 영상이라는 점에서 현장성을 뽐낸다. 사정이 이러니 유튜브는 개인이 하나씩 텔레비전 방송국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경우도, 어떤 특정한 영상을 보면 그와 관련된 다른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서 볼 수 있게 한다. 한 영상에서 만족한 내용을 찾지 못하더라도 다른 영상을 통해 필요한 것을 찾으면 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유튜브 방송은 편향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확증편향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유튜브가 할 수 있다. 이 확증편향이 소위 ‘가짜 뉴스’의 원인이다.

우리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성과가 없다면 유

튜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성제도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시청자들은 유튜브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기존의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졌던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생산, 그리고 소비의 체계모니가 유튜브로 옮겨올 것은 확실하다.

유튜브와 유사한 플랫폼이 넷플릭스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영화라는 일정한 장르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공한다. 유튜브는 이를 넘어 자기의 영화를 업로드해서 관객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유튜브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영화의 완성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완성도 높은 영화를 보려고 관객들은 기꺼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영화관에 간다. 오래된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는 공존하겠지만, 주도권을 쥐는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일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 앞선 미디어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유튜브에 이르러 결정적 변화가 생겼다. 이 결정적 변화는 완전한 1인 미디어의 구현이다. 누구든 진짜 같은 영상물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방송국 시청률보다 더 정확하게 ‘구독자 수’가 공개되는 투명한 세계가 유튜브이다. 방송인의 인기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완벽한 감시의 시스템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근대는 편지의 시대였다. 인터넷이 우편을 대체한 이 시대는 반계몽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반계몽주의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뿌리를 박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믿음이 반계몽주의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 반계몽주의는 계몽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계몽주의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메일을 보내지만 여전히 편지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닿을 곳을 모르더라도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활동 미세먼지문제해결정책제안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세먼지, 과학과 괴담 사이

지난 11월 20일,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과 관련한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평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내 요인은 51%라는 내용이였다. 중국이 중요한 오염원이기는 하지만,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중국 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언론 반응은 다양했지만 역시나 이 결과를 곧 이골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고농도 시의 영향을 제외한 평균만을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3국 연구진이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과학적 모델링에 대해 해당국들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중국발 보다 국내발이 총량에서 많으며 중국을 포함한 3국 모두에서 미세먼지 물질 발생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대비, 지난해 한국은 12%, 중국은 22%, 일본

은 12% 줄었다. 그럼에도 논란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언론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3국 연구진이 함께 확인했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는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미세먼지는 오래 전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해왔지만 발생 자체 보다 대기 정체가 영향을 좌우하며, 미세먼지 고농도 일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의 흐름이 바뀐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건강 위험이 다른 많은 유해물질에 비해 결정적인 게 아님에도, 언론이 '급 발암물질' 같은 부정확한 표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또한 한국 내의 미세먼지 오염원 비중이 더 크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매연에 의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언론은 복잡한 측면들은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천연 공기를 확연히 느끼는 날 아침에 미세먼지는 여전히 중국발이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자극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반발하며, 1980년대부터 누구보다 일찍이 미세먼지 문제를 추적해 온 장재연 교수(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는 미세먼지는 한국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가 보기에 미세먼지 '괴담'은 2013년 말부터 일부 언론에서 소개된 컴퓨터 그래픽과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이 기묘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증폭되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편승했고, 차량 2부제와 같은 부분적인 사후 대책에 몰두하게 되었다. 장재연 교수의 결론은 미세먼지는 위해하지만, 평소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대통령 유엔 연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는 미세먼지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 뿐 아니라 정부의 반응도 여전히 조용한 편이다. 시민의 체감

도도 다르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얻는 효과도 다르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두 문제의 공통 고리는 분명하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두 문제를 그냥 섞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은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이 정상회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에 관한 15도 특별보고서>가 불러온 여파 속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주요국의 정상들이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었다. IPCC와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1도 상승한 가운데 0.5만 더 상승해도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하는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한 세계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6백만 명 이상 모여 '기후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9월 21일 5천 명이 서울에 모여 기후행동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알리는 행동을 벌였다.


하지만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재빨리 축소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지금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서 화석연료 연소 총량이 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한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문 대통령은 내년 P4G정상회의(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한국 개최 약속과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푸른 하늘'의 문제라는 청와대의 인식은 미세먼지 대책이 기후

위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너무나 소박하거나 협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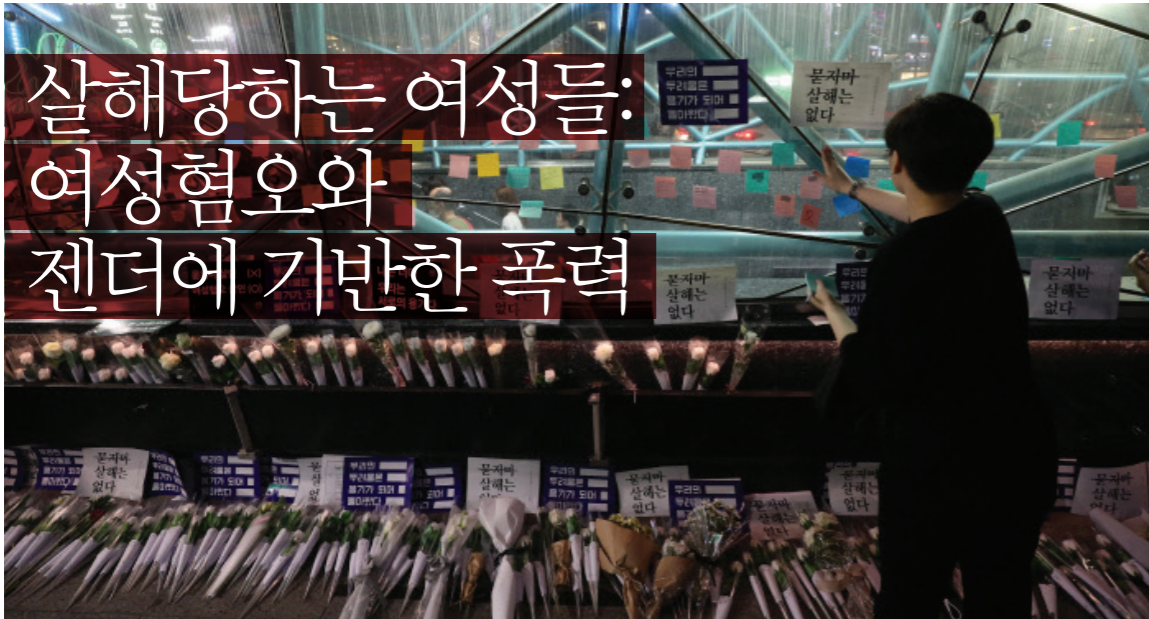
무엇이 중헌지를 묻는 정치를

물론 정부가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 며칠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미세먼지 추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소에 화석연료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밀고가다 보면 기후변화의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으며, 미세먼지 문제로 구성 논의가 시작된 범국가 기구의 명칭이 '국가기후환경회의'로 결정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애초에 미세먼지 이슈를 중심으로 기구가 만들어진 탓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범위와 개입력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당장 성과를 내기 보다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해 손쉬운 해법은 없으며 시급히 그러나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활동에 주력하면 좋겠다.

아마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내년 3월에 실시될 총선에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는 제대로 정치의제화 될 수 있을까? 또다시 포퓰리즘적 공약들과 기후위기 침묵만이 재연되지는 않을까? 시민운동이 벌여왔던 낙선 낙천운동 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지만 시민들에게 '무엇이 중헌지'를 알리고 선택지를 제공하여, 기후위기를 품어 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1)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3주기인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헌화한 꽃과 추모글이 놓여 있다. 출처 경향신문(김정근 선임기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 세계적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무려 8만 7천명의 여성들이 2017년도에 살해당했다. 전체 피해자 수의 58%인 5만여 명은 가족 또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 수치는 매일 137명의 여성이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여성 수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인권운동단체인 '한국여성 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집계하면서 피해자 규모를 유추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배우자나 애인, 전 배우자 또는 전 애인 등 남성

파트너가 저지른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에 처한 피해자(피해자 가족 및 지인 등 포함)는 최소 2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²⁾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만 한 해 평균 2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보면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살인의 피해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다. 그러나 '누가 여성을 살해하는가'의 기준에서 보면, 성별로 매우 큰 격차가 관찰되는데, 남성과 달리 살해당하는 여성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이처럼 여성은 주로 가족, 친밀한 자에 의해 살해당한다

는 점에서 여성살해는 사고, 우연, 불운, 또는 운명에 그 원인을 돌리고 애도로 끝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에 관련 학자와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살해의 원인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당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성이 된다는 것은 출생에 의해 부여받는 성별에 의해 남성과 다른 성별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별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온갖 특성을 암묵적으로 요구받는다.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말하며, 여자같이 꾸미라는 주문은 비난과 강요 뿐 아니라 칭찬과 격려, 그리고 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 여성들 스스로의 자발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되기'와 '여성살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바로 여성살해의 동기에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살해는 여성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는데, 차별하고 싶은 욕구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거부할 때 강렬해진다. 즉 여성혐오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다움을 거부하는 여성을 향한 비난과 분노이다.


여성혐오와 여성살해는 따라서 성차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성답지 않음에 대해 분노하고, 더 나아가 차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자격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은 성차별의 결과이자 성평등의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된 현상이지만, 또 사회가 성평등해질수록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들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해질 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혐오는 단지 어떤 대상이나 그 대상이 가진 특징이 '싫다'는 감정을 넘어 과거 열등한 위치에 있어 통제가 가능했던 어떤 집단이 동등해지려는 현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혐오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어떤 일면식도, 분쟁도 없었던 자를 우연히 살해한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경찰의 공식 발표와 달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선별한' 강남역 살인 사건은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혐오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분노와 편견에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누구'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와 직접적 갈등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특징이 있다.

혐오범죄가 규제되지 않는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혐오의 대상, 즉 여성 또는 유색인종이 아닌 채로 외출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혐오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범죄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애써 온 사회 전체의 노력'을 무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의 맹렬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상대와 이별하고자 할 때, 관계를 끝내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 가장 많이 위협당하며, 살해당한다. 이는 여성을 소유·지배하고 통제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남성의 왜곡된 인식 때문인데, 그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분노를 자극한 바로 그 여성에게서 찾으려 했던 성차별적 사회가 그 배경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있다는 오만과 착각을 바로 잡고,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며 남성의 분노를 이해하고 폭력을 정당화해왔던 그간의 불합리한 행태를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길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보통의 상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혐오와 폭력의 낡은 수렁이 제거될 수 있다. 

1) UNODC, Global Study on Homicide, 2018.
2) 조재연,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2019.12.10.

알.쓸.신.잡

대학·청년Y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시발비용'으로 해소



[표본오차: 95% 신뢰범위 내 ±3.25%] 자료: 인크루트

한해의 끝이 다가오는 11월.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청년토크를 진행했다. 한국사회 청년들은 어떤 경제 고민과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며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이번 청년토크 주제는 '소비문화다. 청년토크 참가자 이름은 익명으로 실는다.

신조어에 울고 웃는 우리들

- 알** 나 오늘 flex 해버렸지 뭐야.¹⁾
- 쓸** 오~ 나도 겨울맛이 탕진잼²⁾했어. 그래서 텅장³⁾됐다고ㅠㅠ
- 신** 너희가 말하니까 갑자기 생각 난건데 요즘 소비랑 관련된 신조어가 유독 많은 것 같아.
- 잡** 그러게? 있어빌리티⁴⁾, 핫김비용⁵⁾, 소확행⁶⁾, 가심비⁷⁾ 등 부쩍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 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말하고 보니가 그렇지?
- 신** 요즘 청년들이 불안과 소외를 소비로 많이 푸니까 자연스럽게 신조어들이 나오니까.

일점호화(一點豪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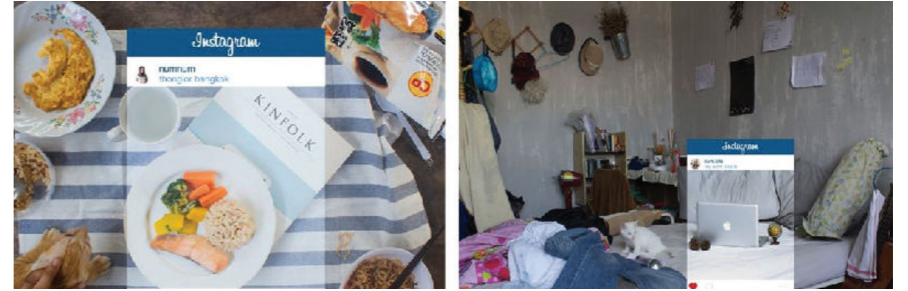
- 쓸** 일점호화라는 말 들어봤어?
- 알**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거 맞지?
- 쓸**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행복을 위해서라면 절

- 대 안 아끼는 것 같아. 나도 여행에는 절대 돈 안 아껴.
- 신** 나는 먹는 거ㅋㅋ 웃은 안사도 먹을 건 포기 못해.
- 쓸** 삶이 힘드니까 다들 소비로 행복을 사는 것 같아.
- 잡** 인스타그램만 봐도 자기 과시하는 거에 미친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아.
- 알** 맞아. '좋아요'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오죽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개수 안보이게 하는 시스템을 한국에서부터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
- 신** 예전에 어떤 사진작가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밖에 숨겨진 진실'이란 사진 올렸는데 진짜 공감가더라..
- 잡** 대한민국은 지금 일회용 행복에 놓여있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위로하는 것이 감성적 소비인거지.

빚을 권하는 사회

- 잡** 여기서 더 문제는 이놈의 사회가 빚을 권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처럼 좋은 것, 예쁜 것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 알** 맞아. TV만 틀면 나오는 대부업체 광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대출 문자를 보면 흑할 수밖에 없지.
- 쓸** 그리고 대출이 너무 쉽게 되는 것도 문제야. 이자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려.
- 신** '학자금 대출'도 문제야.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지.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으로, 저소득은 저신용으로 연결되고 급기야 신용불량으로까지 전락하게 돼.

잡 맞아. 취업포털 커리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10명 중 4명이 학자금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SNS밖 숨겨진 현실

알 대학생 때 학자금을 대출 받는 학생들은 학비만으로 대학을 다닐 수 없어서 생활비 대출에도 손을 뻗기 시작해. 금융 이력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고 시장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은 20대가 감당하기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알들하면서 쓸 때 쓰게 하는 신박한 잡학지식

- 쓸** 우리 각자 청년들에게 도움 되는 금융정보 알아오기로 했잖아. 돌아가면서 소개해보자.
- 신** 생각보다 정부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더라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참 쉬운 재무진단'을 무료로 해주더라고. 나도 이번 기회에 해봤는데 좋더라!
- 알**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우리 지역은 '씨앗자금' 지원이나 '청년통장' 같은 것을 개설해 줘.
- 쓸** 우와 부럽다. 우리 지역에도 생기면 좋겠다ㅠㅠ
- 잡** 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제테크 정보를 알아봤어.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라고, 내 자산이랑 소비패턴을 기록하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카드나 적금도 알려주고, 소비분석까지 해줘서 쓸데없는 소비를 막아주더라고.
- 신** 나도 '뱅크샐러드' 쓰는데 짱 좋아! 너희도 당장 깔아.
- 쓸** 찾아보니깐 시민단체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 청년들만을 위한 제도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부채를 해결해주거나 건강한 경제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대.
- 쓸** 한양대에서는 '키다리은행'이라는 자조금고 만들어서 적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기독교 단체 '희년함께'에서도 청년자조금고를 만들었어.

알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데나리온뱅크'도 기독교 청년단체에서 만든 은행이야.

신 우리가 몰랐던 거지 생각보다 정부랑 기업, 민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금융 정책이 많구나.

소비를 넘어 공유로

- 잡**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소비를 하고 올바르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 쓸** 아껴쓰고, 나눠쓰는 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새로운 소비패턴이 필요한 것 같아.
- 알**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협업의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하는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봤어?
- 신** '쏘카'나 '에어비엔비' 말하는거지? 나는 이런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아.
- 알** 맞아. 그런 것 말고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나 도서대여 서비스도 공유경제야.
- 잡** 그거 알아? 물건 말고 지식을 공유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공유경제래.
- 쓸** '와디즈', '텀블벅' 진짜 애용하는데 이런 것도 공유경제였구나?
- 알** 개인주의, 자원부족, 자원낭비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공유경제'야. 공유경제를 하려면 협력을 할 수 밖에 없고, 자원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지. 거기다 학생들도 공유경제의 판매자, 소비자 둘 다 될 수 있다고!

1) 부와 귀족품을 과시한다는 신조어
 2)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 말
 3) 텅빈 통장
 4)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뜻하는 '어빌리티(ability)'를 합친 신조어로, 실상은 별거 없지만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말
 5)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을 일컫음. 핫김에 시킨 배달 음식값이나, 짜증이 나서 탄 택시비 등
 6) 작지만 확실한 행복
 7)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가성비'에 마음 '심(心)'자를 더한 신조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29회 YWCA 세계대회에서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홍현정

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제29회 세계대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1월 17일(일)부터 22일(금)까지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변혁하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70여 개국에서 온 정대표 256명, 방청대표, 후원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대회 주제에 맞게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각 나라의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세계대회 주제 세션

이번 회의에 참여한 중 30세 이하 젊은 여성들은 정대표 수 30%, 전체 참가자의 33%를 차지했으며, 사무회의, 공천 위원회 보고, 선거, 워크숍, 회담세션 등 대회기간 동안 중요한 세션들을 진행했다. 특히 세계대회 주제 세션에서는 아직도 조혼제도가 있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며, 매 15초마다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여성들이 진솔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또 지난 28회 세계대회에서 만들어진 '젊은 여성 글로벌 자문 위원회 (Young Women's Global Advisory Council)'는 젊은 여성들이 세계YWCA와 회원국에서 수혜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YWCA를 운영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For young women, by young women"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세계YWCA 활동 전반을 검토하고 변화를 제안했다.

2020-2023 세계YWCA 전략 프레임워크

이번에 통과된 세계YWCA의 2020~2023년 세계YWCA 정책 목표는 "2035년까지 1억 명의 젊은 여성들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고 모든 여성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YWCA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좀 더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회원국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YWCA 브랜드와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한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은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몇 개

회원국은 이번 총회에서 YWCA 회원국에서 제외 되었다. Goal 2035의 달성을 위해서는 회원국에서 몇 명의 젊은 여성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도 개발 중에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세계YWCA의 회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회원구조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세계YWCA 헌장 개정 반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다

매년 세계대회에서는 세계YWCA의 헌장 개정을 한다. 개정 내용을 회의 개최 6개월 전에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Y 규정에 따라 세계대회 참석 전에 헌장 개정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헌장 전문에 '세계 기독교여성들이 설립한 YWCA는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여 설립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세계YWCA는 기독교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신념과 종교적 전통을 받아 들인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한국 YWCA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 조항에 대한 한국YWCA의 반대 입장을 보내고 세계대회 기간 동안 함께 이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지역YWCA에는 세계대회 기간 중 만남을 제안했다. 헌장 개정에 대한 투표 전날인 11월 18일 월요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시아 11개국의 대표들이 이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해 모였다.

내가 다른 일정을 마치고 그 모임장소에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시아 대표들간에 의견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홍콩에서 온 대표 중 한분이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시아 대표 국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헌장 개정 사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뒤 이들의 표정에는 아시아 회원국 간의 연대를 경험한 기쁨, 아시아의 목소리를 함께 모은 뿌듯함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9일(화)에 예상대로 헌장개정에

대한 긴 토론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개정사항 하나에 대해 무려 두 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아시아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헌장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과 다른 종교를 갖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YWCA가 추구하는 참기독교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같은 주제로 두 시간을 토론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인내하고 존중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기했다. 서로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었고 같은 의견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이 오자 토론을 종료하지는 않건이 올라와서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단단한 기독교 여성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YWCA

헌장 개정에 대한 결과는 참가한 71개의 회원국 중 50개국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막연하게 유럽과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계YWCA가 기독교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덴마크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마저도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80여 개국의 여성 대표들이 참여해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한국YWCA가 이 단단한 기독교 여성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함께 있고, 그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국YWCA 결의문: 217표 찬성,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

그로부터 이틀 뒤 이 여성들의 자매애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한국YWCA는 이번 세계대회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으로 결의문을 제출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하고 여성들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총회에서 결의문이 통과되면 세계YWCA와 회원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활동들에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 단 한건의 반대의견이나 문제제기 질문 없이 바로 투


표를 진행했다. 217표의 찬성, 반대 1표, 기권 8표로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결의문이 통과되었던 찬성표 수 중 가장 높은 수였다고 한다.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의 결의문 발표가 끝난 뒤 한국Y 결의문 발표에 대한 프랑스 대표의 소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 분은 한국이 전쟁의 피해자인줄만 알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이 결의안에 대해 한미미 부회장과 영상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렇게 세계 여성 대표들에게 한국의 상황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운동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원영희 공천위원 연임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선거에서 세계YWCA 부회장에 한미미 부회장 연임, 공천위원에 원영희 세계YWCA 공천위원이 연임되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다. 세계대회 기간 동안 나는 통역을 담당했었는데, 한국어 통역부스는 불어와 스페인 통역부스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두 분의 당선 결정될 때마다 옆 통역부스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함께 축하해주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Y 뿐 아니라 세계Y

를 위해서도 헌신하셨던 두 분이 세계Y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번 세계대회에 참가한 한국 참가자 21명에게는 세계대회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주어져 있었다. 청년들의 파워세션 진행, 아시아 지역회의, 현장개정 의견 준비, 결의문 통과, 부회장과 공천위원 선거, 젠젤리마켓 운영 등.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매우 걱정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게 된 자리라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요하네스버그의 치안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을 전해들은 터라 안전이 걱정됐었다. 그런데 6박 7일간 세계대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여성 운동조직이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단단함, 용기, 인내심이었다. 이 좋은 감동적인 기운들로 인해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돌아오는 긴 시간 동안 걱정이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새가 없었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앞으로 한국YWCA가 국제 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들과 연대하며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결의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발의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당사국은 물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이며 중심지이자, 이념의 갈등 지대이며 완충 지대로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YWCA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원과 노력을 요청하며 다음의 운동을 함께하고자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관련한 지역과 국제 활동들에 연대한다.
2. 북한의 모성,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사업에 협력한다.

발의 논거

1.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작성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 관계를 선언하였다. 또한 같은 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미 간의 관계는 난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좀 더 강력한 상호 합의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유엔 제재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 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최근 10년 간 기록을 비교해볼 때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북한 인구의 43%인 1,090만 명은 인도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동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여아의 발육부진율(19.9%)은 남아의 발육부진율(18.4%)보다 높다. 또한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1.2%이며,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 당 82명에 달한다. 유엔인도주의지원국(UNOCHA)은 북한을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 지역 12곳(12 forgotten crises to remember)'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들조차도 그 목적이 인도지원 사업 저해에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및 취약 여성의 건강과 보건 의료 증진 사업은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 유엔 안보리 결의문 1325는 여성-평화-안보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며 평화 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여성의 참여를 중요시한다. 또한 무력 분쟁에서 인도주의의 존중과 더불어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취약 여성과 아동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전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여성평화운동의 강력한 실천이다.

YWCA 회원국이 실행할 전략과 실천과제

1.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 평화 의식 향상을 위한 SNS 등의 온라인 운동 참여
2.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한 촉구활동에 협력한다.
 - DMZ 방문, 국제여성평화걷기(WCD) 참여,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여 시 유엔 본부 앞에서 회원국 참가자가 함께 모여 남북평화협정 체결 촉구 평화걷기(Peace March) 실시
3. 전쟁과 무력 충돌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보건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에 동참한다.

기대효과

- 한반도 무력갈등의 위험성 감소와 국제 사회 평화 분위기 확산
- 평화에 대한 인식 향상과 각 지역에서의 평화운동 실천력 증대
- 젊은 여성의 인권 증진과 리더십 강화에 기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퇴치, 두 번째 목표인 기아종식에 기여

한국 참가자 명단

정식대표 : 한영수(연합회 회장), 백해진(연합회 제1서기), 김태연 (연합회 제2회계), 박은실(연합회 국장), 이수진(청년대표/대전Y), 문윤희(청년대표/연합회 간사) 총 6명
방청대표 : 손예지(청년대표/전주Y), 김하영 (청년대표/서울Y), 김옥순(청주Y), 조철숙, 노인재(인천Y), 박선(대구Y), 이유림(서울Y), 조정현(대전Y), 안정희, 장수빈, 최수산나, 홍하늘, 홍현정(연합회 실무자) 총 13명

세계대회 결과

- ▶ 회장 1명, 회계이사 1명, 부회장 6명, 세계Y 이사 12명, 공천위원 5명 선출 (회장 : Mira Rizeq, 팔레스타인YWCA / 회계이사 : Emma McCarthy 호주YWCA)
- ▶ 2020-2023 전략 프레임워크 및 예산 통과 ▶ 세계YWCA 회비 계산 공식 변경
- ▶ 2035년까지 1억 명의 젊은 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세계YWCA 목표를 위해 2015년 방콕에서 만들어진 젊은 여성들의 자문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세계YWCA에 제안사항 발표

세계대회에서 한국YWCA 역할

- ▶ 한국Y가 19개국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결의안이 2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됨
- ▶ 한국Y가 아시아지역과 협의하여 세계YWCA현장 전문에서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신념을 받아들일것다는 현장 개정내용에 대해 7개 참여 회원국 중 50개국의 반대표를 이끌어 냄
- ▶ 한국Y에서 세계대회에 후원한 금액으로 세계대회 가방 및 뱃지 제작
- ▶ 세계YWCA 한미미 부회장, 원영희 공천위원 선출 ▶ 청년 대표단 5명이 "For More Feminism in the Media" 파워세션 진행
- ▶ 젠젤리마켓에서 한국YWCA, 청주YWCA, 대구YWCA 제작 물품 판매 ▶ Gala Dinner MC(홍하늘) 진행
- ▶ 아침예배에서 한국대표단이 특송 진행 (특송곡 : 국악풍 '주기도문') ▶ 19명의 세계대회 참석자 중 6명의 청년대표 파견

‘정의, 평화, 생명’ 세상 위해 전 세계 자매들 함께하다



1



2



6

① 세계YWCA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②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한국YWCA의 결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③ 젊은 여성들을 위한 회담세션 참가자들 ④ 한국YWCA 청년 참가자들 발표(파워세션)에 참석한 세계대회 참가자들 ⑤ 한국 참가자들이 진젤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⑥ 세계YWCA에 참석한 아시아YWCA 지역 대표들 모임 ⑦ YWCA 세계대회에서 아침예배를 드리고 있다. ⑧ 젊은 여성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⑨ 세계YWCA 공천위원회(오른쪽에서 세 번째 원영희 세계YWCA 공천위원) ⑩ 세계YWCA 이사회(앞줄 네 번째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3



7



8



4



5



9



10

소감 1

청년, 오늘의 리더

백혜진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대회 정대표



세계대회에 참석한 한국 정대표 6명(왼쪽부터 문윤희 간사, 이수진 청년회원, 박은실 국장, 한영수 회장, 백혜진 실행위원 김태년 실행위원)

6일간의 세계대회를 참가하고 난 후, 대회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단어들에 기억이 깊이 남아있다. 이 몇 가지 단어들은 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신과 마음에 강한 힘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활동가(Activist)’, ‘세대 간 연결(Intergeneration)’, ‘청년회원’, 그리고 ‘세계Y 재정상태’와 그에 대한 토론들이다.

대회 둘째 날 주제 강연 강사가 “여러분은 자신이 활동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2019년 12월인 지금 나는 활동가인가? 회원운동체인 YWCA에서 회원인 내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자신이 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YWCA 운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 같다.

‘세대 간 연결’ 혹은 ‘다양한 연령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이라는 의미의 ‘Intergeneration’은 세계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다. 특히 “청년은 미래의 리더가 아닌 오늘의 리더”라고 할 때, 나의 머리와 가슴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들을 미래세대라고 불렀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리더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다가 올 미래는 청년들이 주인이고 그들이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과정에 한 두 명의 청년만이 포함되어도, 미래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민주화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러나 강사는 “젊은 여성에게 단지 참여 기회만 주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을 전문가로 보고 명백한 권한을 부여했는가?”라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나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질문이었다. 이와 함께 청년회원은 항상 2035라는 숫자와 동시에 언급되었는데, “2035년까지 1억 명의 청년회원과 함께 하겠다는 목표이다. 세계YWCA가 청년회원활동을 최우선으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세계YWCA의 어려운 재정상태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인상적이었다. 세계YWCA 재무담당자가 재정적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계YWCA 이사회는 지난 4년간의 재정적자 때문에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하여 세계YWCA 예금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했다. 재정적자의 이유로 비용증가, 세계경제 여파 그리고 투자 실패 등을 꼽았다. 세계YWCA 회장 선출에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 명의 회장 후보 중 재정문제 극복에 상대적 경험이 많은 팔레스타인YWCA의 사무총장이 세계YWCA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이 청년 연령층이 아닌 반면, 부회장단과 공천위원의 60% 이상이 30세 이하 청년층에서 선출되었다. 선거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YWCA는 세대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YWCA 차례이다.

소감 2

여성 청년리더 되기, YWCA와 함께 시작하다

이수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대전YWCA 청년회원
세계대회 정대표



한국참가자들이 국가별 입장하기 전 조각보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이수진 청년회원.

이번 29회 세계YWCA 총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했다. 처음에는 청년대표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YWCA 회의장에 도착해서 ‘YOUNG WOMAN’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명찰에 붙이면서, 비로소 내가 한국YWCA의 청년 여성으로서 세계YWCA 총회에 참석했음을 실감했다.

파워세션: 미디어 속 젠더문제 알리기

총회에 함께 참석했던 청년참가자들과 파워세션(Power Session)을 맡아 진행했다. 우리는 ‘미디어 속 더 많은 페미니즘을 위해’라는 주제로 한국 미디어 속의 젠더문제에 대해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YWCA 활동을 소개했다. 최근 한류 열풍의 중심인 방탄소년단의 노래 ‘호르몬 전쟁’과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다는 동요 ‘아기상어’, 그리고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101’ 등의 사례를 통해 미디어 속에서 발견한 여성혐오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YWCA의 미디어 모니터링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페미니스트인 우리 개인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후에도 다른 나라의 청년참가자들이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미디어 내 여성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Young Woman’ 참여 위해 세대 간 소통 중요해

이번 총회는 청년여성 리더를 권력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YWCA가 ‘Young Woman’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워 권력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 청년들이 권력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윗세대는 ‘혹시 청년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청년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청년들이 현재 자리한 위치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청년이 아닌 세대가 이러한 고민들을 한다면, 여성 청년들은 권력구조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계YWCA 총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하면서, 내가 그동안 ‘청년’이란 단어가 주는 상징성 앞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청년으로서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며 앞으로 여성 청년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다. 한국대학청년YWCA 회원들과 함께 청년 리더가 되어가는 길을 찾아가며 권력구조 속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청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YWCA 안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경험하게 되어 감사했다.

청년, 젠더평등을 위한 교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다!

올해 '청년, 젠더평등을 위한 교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다!'를 주제로 11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연합예배를 드렸다. 강호숙 전 총신대학교 교수의 설교를 요약해 실는다.

김은영
연합회 국제협력팀 간사

기독교체성을 유지하며 청년들이 사회와 소통해오던 공간인 YWCA와 YMCA에서 젠더평등과 젠더인식, 젠더정의, 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목상을 공동연합예배 안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젠더는 사회와 인간을 형성하는 강력한 요소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분석해보면, 기독교 신앙에 성(性)이 빠져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으신 뜻과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각각의 인간됨을 지니며 상호보완적 의미를 지닌 파트너를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관점 없이는 젠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남성중심의 직제는 여성에 대한 성경의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원칙적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로, 성경은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유대 가부장 사회에서도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분이다.

YWCA와 YMCA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19세기 구한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여성에게 교육계몽운동으로 남녀평등

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실천하여 시대를 선도했지만 해방 후, 남성중심의 직제와 신학담론으로 교회의 남녀평등 사상은 훨씬 뒤처지고 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성 평등, 인권과 같은 젠더문제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차별과 성폭력과 같은 섹슈얼리티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문제를 덮어버린다면, 그리스도 복음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의(justice)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인간성의 의무이기에 인간됨의 요소인 남녀관계에서의 젠더정의야말로 교회공동체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교회직제와 교회정치 개혁을 위한 핵심키워드다.

젠더평등하고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지닌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경읽기가 중요하다. 둘째, 낙태문제, 성차별과 성희롱, 성 정체성과 성역할, 동성애와 간통 등 젠더 이슈에 대해 남녀 간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차별적인 설교를 접했을 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고, 성범죄 신고 핫라인 개설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들의 젠더평등을 위한 권력구조로 개혁과 성 평등문화 실천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교회는 공존, 연합, 정의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회복 즉 인간성을 이뤄갈 수 있다.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수상자들과 함께한 기념 촬영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11월 28일(목)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1996년 제정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은 YWCA가 지향하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잘 나타낸 작품을 선정해 지난 23년간 꾸준히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올해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 이르기까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55편의 후보작 추천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로 대상, 부문상(성평등/생명/정의·평화), 특별상을 선정했다.

박민영 EBS아나운서 사회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경과보고(김은주 심사위원장, 심사보고(이경순 심사위원),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영수 회장은 "올해에도 약한 자, 소외된 자, 외면 받는 자의 편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너와 나 편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도록 응원하며 위로하는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경순 심사위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폭력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디어에서 여성이슈를 드러내고 소수자와 약자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음"을 말하며 시대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앞으로도 유의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대상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상을 보여주며 권위적인 사회구조에 필요한 여성연대, 주체성, 정의감 등의 대안적 가치를 제시한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수상했다. 성평등 부문상은 소음으로 치부되며 격하될 수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론화시키며 외침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KBS 스페셜>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가 수상했으며, 생명 부문상은 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EBS <베워서 남줄랩>가 해하기 싫어요, 미워하지 마 자해하지 마 편이 수상했다. 정의·평화 부문상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세균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사회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빙커>가 수상했으며, 특별상은 일본군 '위안부' 인권문제와 이 시대 독립정신을 보여준 <EBS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제8부 지금, 여기 유일한 편이 수상했다. 

수상소감

대상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권도은 작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보고 싶은 작품을 만들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작품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 할 때 거창한 사명감이나 어떤 가치관보다는 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이 세 명이 나와 일로 엄청 싸우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욕구가 생긴 것 같고, 이런 욕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욕구가 외면 받지 않은 것 같아 감동입니다. TV라는 매체의 책임감이나 엄중함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좀 없냐'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부문상 <KBS 스페셜>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

최진영 PD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는 지난해 미투 이슈와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성 언론에서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세 명의 여성들이 나오는데 결국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큐가 이상해 보이는 날까지 아마 여성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상을 주시고 격려해주시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작품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 할 때 거창한 사명감이나 어떤 가치관보다는 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수상소감

생명 부문상 EBS <배워서 남줄랩> '자해하기 싫어요, 미워하지 마자해하지 마' 편

김훈석 PD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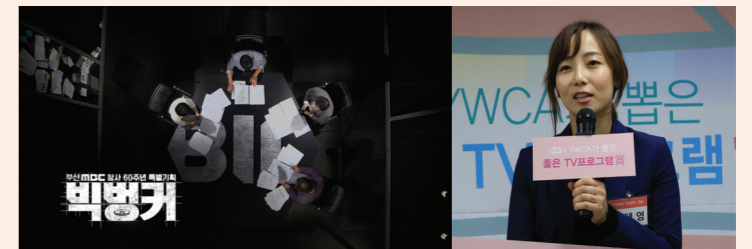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만, 청소년프로그램 제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모습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식하려는 것 같아 고민

을 많이 하게 됩니다. 랩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언어였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평화 부문상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방커>

원혜영 PD “정의·평화상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세금을 쓰고 있는 관공서, 지자체 등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미움을 받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칭찬을 해주 시니 더없이 기쁩니다. 수천 장의 예산서를 밤낮없이 보고 적폐예산을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상의 무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상에 합당한 가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EBS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제8부 지금, 여기 유일한 편

이승주 PD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역사 다큐 만들겠다”



소위 팔리지 않는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다큐멘

터리를 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꿈꾸는 Y-틴, 성평등 토론회 열기로 결정하다



Y-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

이예림
안양YWCA Y-틴

11월 23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Y-틴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자 35명, 활동가 11명이 참석했다. Y-틴 정책토론회에서는 Y-틴이 생각하는 YWCA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내년에 다함께 하고 싶은 성평등 관련 활동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Y-틴 이야기

중학교 1학년 겨울,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안양YWCA에서의 Y-틴 활동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1때부터 고3이 된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YWCA와 함께 했는데, 안양YWCA에서 하는 활동도 재미있었고, 키다리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으며 Y-틴 전국회원대회에서 쌓은 추억도 많다. 그런데 졸업하면 소중한 친구들과 Y-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했다.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Y-틴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 6년간이나 활동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Y-틴으로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Y-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지만,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에게 Y-틴이란?

'나에게 Y-틴이란?' 질문에 답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나에게 Y-틴이란 "학창시절 전부다"라고 말하고 싶다. 영상에 이어 세 명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

표자 박충현 회원(청주Y)은 "Y-틴을 통해 많이 배우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박영주 회원(서울Y)은 여성단체인 YWCA 활동을 통해 배운 성평등 인식과 학교안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성차별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Y-틴의 태도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만드는 어른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세 번째 발표자 김정우 회원(대전Y)은 남자회원으로서 바라보는 Y-틴 활동에 대해, 남자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남자청소년은 Y-틴 중앙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말하며 "청소년, 여성운동을 지지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세 친구의 발표를 들은 Y-틴 대다수가 내용에 공감했다.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Y-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Y-틴에 대해 말하다

우리 모두가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유일영 선생님께서 신호동 기법 토론회를 이끌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질문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기타 의견도 말할 수 있었다.

"Y-틴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발성", "재미", "친구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YWCA 활동에 어려운 점으로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동아리에 비해 Y-틴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Y-틴 활동이 즐거운 이유"는 1/3 정도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친구들은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하는 대상인데, Y-틴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간사님들이 좋아


서", "간식을 많이 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Y-틴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친구", "Y-틴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나도 왜 6년간이나 Y-틴을 했을가를 생각해 보면 YWCA에서 만난 지역과 전국의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평등 세상을 꿈꾸는 Y-틴

이어서 '성평등'을 키워드로 그림 그리기를 했다. 우리 조원들은 평등부호, 같은 색의 남녀, 손잡고 있는 여자와 남자, 저울 그림 등을 그렸고, 나는 남녀 둘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닌 6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성평등은 두 개의 성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의 평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평등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세상을 위한 Y-틴의 활동을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6개의 조가 내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활동을 결정하고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는 '교복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주제로 교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다. 내년에 성평등을 주제로 한 활동은 '성평등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년 '성평등 토론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물론 나는 Y-틴을 졸업하기에 발언은 못하겠지만 방청으로라도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5시간 동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시간은 짧게만 느껴졌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고, Y-틴 활동에 대해 다른 지역 친구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우리가 Y-틴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내년 활동을 직접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다. 

'미투' 운동 이후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서사

오수경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은·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기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일상, 여성에게 더 혹독한 '부러진 사다리'와 '유리천장', '자연재해'에 가까운 가부장 중심 가족 체계... 어디를 둘러봐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곳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은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 이후 심화되었다. '메갈' 논쟁을 거쳐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을 겪으며 '미투' 운동에 연대한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인 사회문화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더는 이성애 연애 중심/가부장 체계를 대변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기존의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겨울왕국 2> 테마곡 제목처럼 자신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찾아 미지로(In to the Unknown)의 탐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포착하는 대중문화 장르가 텔레비전 드라마로, 한국 사회



동백꽃 필 무렵
감독 차영훈 극본 임상춘
방영일 2019.9.18~11.21

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의 현실을 재현하며 때로는 관습의 지지체로, 때로는 지향으로서 사회적 타협과 균열을 끌어낸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타협과 균열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서사는 어떻게 변화하며 문화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을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더 다양해진 드라마 속 여성 서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사는 더 다양해지고, 여성들은 더 단단하게 성장했다. 그동안 '캔디텔라' 혹은 잠재적 연애 대

상자로 소비되던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일하고 욕망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시그널>(2016) 차수현, <비밀의 숲>(2017) 한여진, <라이프 온 마스> 윤나영 등은 연애하지 않고 일하는 여성 캐릭터를 구축했다. 이런 여성 캐릭터는 <굿 와이프>(2016) 김혜경, <미스타>(2018) 고혜란의 욕망을 긍정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WWW>(검블유/2019) 배타미, 차현, 송가경을 중심으로 한 '여성 사회'를 구축하며 확장했다. 이런 확장성은 노년 여성 공동체를 다룬 <디어 마이 프렌즈>(2016), 청년 여성 공동체를 다룬 <청춘시대>(2016-2017), 흥희, 영신, 수진, 혜나로 연결된 '무혈연' 가족을 통해 모성을 재해석한 <마더>(2018), 일상과 고통을 공유하는 공동체 <멜로가 체질>(2019), 차별당하고 배제당한 약자들의 공동체 <동백꽃 필 무렵>(2019) 등 '포스트 가부장' 사회의 대안 모델로서 비혈연 수평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과 '미투' 운동 이후 등장한 성폭력에 맞서 연대하여 싸우는 여성 서사를 눈여겨볼 만하다. <마녀의 법정>(2017)의 마이듬은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로서 각종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마이듬의 어머니는 20년 전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서 어머니 세대에서 딸 세대로 이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청년 여성 공동체를 다룬 <청춘시대 1>는 직장 내 상사의 성희롱에 노출되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전편의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청춘시대 2>에서는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불행하게 살다 자살한 친구를 대신하여 그 사실을 폭로하는 송지원과 그의 친구들의 서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지구대 경찰들의 일상을 담은 <라이브>(2018)는 가정 폭력, 아동 폭력, 집단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이 당하는 각종 사회적 폭력을 다루었다. 여성 주인공 한정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 경찰이 되어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존재로 등장한다. <미스 함무라비>(2018)에서는 여성 판사 박차오름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성차별 문제를 '미러링'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너의 인생을 살라

앞서 소개한 드라마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현재의 문제를 공론화했다면, 어떤 드라마들은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는 지향을 보이며 미래를 당겨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꾸준히 변화한 여성 서사의 지향을 보다 선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인상적인 드라마들을 여러 편 만날 수 있었다.

상반기에 방영된 <눈이 부시게>는 노년의 삶, 알츠하이머, 장애 등 그동안 드라마가 비가시화하거나 타지화한 약한 존재들의 서사를 당사자적 관점으로 재현했다. 그 약한 존재들의 서사는 결국

어머니와 며느리와 딸, 즉 여성들의 관계로 이어졌다. 김혜자가 며느리에게, 요양원 노인이 딸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관해 용서를 구하며 너의 인생을 살라고 당부하고,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김혜자의 마지막 내레이션의 수신자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나'였을" 여성들이었다. 이런 약한 존재들 간의 연대는 다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다. <검블유>는 다른 직군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IT 업계를 배경으로 영웅도, 악당도, 싸움도, 연애도 모두 여성이 하는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멜로가 체질>은 그 가능성의

폭을 더 넓혔다. 비혼 여성, 비혼 워킹맘, 조현병을 앓는 여성, 성소수자로 이루어진 비혈연 공동체를 통해 그동안 존재했으나 편견의 대상이 된 이들의 서사를 보여주었다.


가장 최근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은 더 입체적인 드라마다. '용산 계장 골목'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따뜻한 혈연 중심 사회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비혼 여성, 이른바 '직업'여성, 대중이 요구하는 이미지에 갇힌 '셀럽' 여성이 어떻게 '병균' 취급받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제대로 호명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는지 보여주었다. 이런 여성 서사는 단지 생물학적 '여성'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60일, 지정생존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현실 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감독 정지현 극본 권도은
방영일 2019.6.5~7.25

도의 문제를 전면에 다뤄 화제가 되었다. 결국, 여성 서사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과 제도를 공유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대중이 숙고하도록 담론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 드라마들이 보여준 지향은 불완전한 것이기도 하다. <검블유>는 주체적인 여성 서사를 구축한 것 못지않게 '퀴어 서사'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이성애 중심 서사를 벗어나지 못했고, <동백꽃 필 무렵> 속 평범한 영웅들의 선의는 가족주의로 환원되었으며 가족이 없는 향미는 결국 죽었다. 어

찌 보면, 드라마 속 여성 서사는 딱 반걸음 정도만 앞서간 것 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올해 한국 드라마가 보여준 여러 가능성을 지지하고 싶다. <검블유> 속 대사처럼 한국 드라마는 지금까지 "시대가 결국 선택하게 될 것을 미리 선택하고 시대가 결국 버리게 될 것을 미리 버리"며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관습과 지향 사이에서 2020년의 한국 드라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되는 이유다. 합리적이고 주체적 개인, 느슨하지만 단단하게 연결된 개인들로서의 여성 서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박은정

군산YWCA 사무국장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군산YWCA 회관 지하공연장에서 군산YWCA 창립예배와 총회가 개최되었다. 53번째 회원YWCA로 새롭게 시작하는 창립행사에 군산YWCA 회원들을 비롯하여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서부지역 YWCA 회장과 사무총장, 강임준 군산시장, 지역사회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YWCA는 지난 2011년 60여 년의 역사를 접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는 군산 지역에서 돌봄과 살림,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2012년 6월 연합회 산하의 직할지부를 설치하고 실무책임자를 파견하였다. 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YWCA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군산YWCA 새로운 창립 기반 준비를 도왔다.

그 시작에는 '사람'이 있었다.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직할지부의 운영위원과 실무자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양성훈련을 진행했고, YWCA의 목적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군산YWCA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하였다. 지난 아픔의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연합회와 후원회,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주영 변호사님, 먼길 마다않고 양성훈련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천진 목사님, 군산직할지부 초기부터 이끌어주신 김형남 전주YWCA 중경회장님, 실무책임자로 운영기반을 기초부터 세우느라 애쓴 원은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군산직할지부 활동을 묵묵히 이어온 위원들과 실무활동가들, 군산YWCA의 새 역사를 함께 꿈꾸며 소망한 많은 회원들이 계셨기에 군산YWCA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순 군산YWCA준비회 회장은 이 모든 분들께 깊이



새로 세워진 군산YWCA 이사들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감사하며 앞으로 한국YWCA의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펼쳐 나가며 회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소통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군산YWCA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격려 인사와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태창 군산YMCA 이사장의 축하 인사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군산YWCA 이사과 실무자, 회원들은 더욱 힘을 얻고, 건강하고 책임있게, 모두의 기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했다.

앞으로 군산YWCA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성훈련과 다양한 중점운동 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키워내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업, Y-틴 활동, 돌봄사업, 탈핵운동 등 작은 걸음이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지역에 하나님나라 운동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협력하여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YWCA가 되도록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제 막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지만, 이 첫 걸음이 앞으로 군산YWCA의 100년을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YWCA 목적에 맞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군산YWCA가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격려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연합회 소식

11월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11월 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국제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김신애 목사(Y아카데미 위원)가 말씀을 전하고, YWCA세계대회 참가자들과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들이 특송을 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연합회 위원, 실무활동가들은 한국Y 사명을 다시 한 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 전국YWCA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전국YWCA어린이집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힐링연수'가 11월 9일(토)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크로프스키홀에서 진행되었다. 환영식과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2부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로 이어졌다. 이천진 목사가 진행한 2부 순서는 CCM가수(동방신기), 오르간(한은미)과 바이올린(황혜린) 연주, 뮤지컬 가수(박서현이), 성악가(이민호, 정필희, 허나영)의 음악이 함께 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전국 19개 어린이집 171명 교직원이 모인 이번 연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Y어린이집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제4차 YWCA 미래가치포럼



11월 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4차 YWCA 미래가치포럼이 열렸다. 지난 1차부터 3차까지의 강의를 돌아보면서, 나와 YWCA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는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세상과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을 위한 기술, 인간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NGO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간의 미래, 4차산업혁명 그리고 일'(1차, 이종관 성균관대 교수),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소비 사회와 윤리적 삶'(2차, 양권석 성공회대 교수),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3차, 이택광 경희대 교수) 내용을 다룬 2019 YWCA 미래가치포럼은 이날 워크숍으로 마무리되었다.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2019년 12월 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유공자로 대통령표창 안정희 연합회 부장, 공정위원장표창 김명희, 윤점순 광주YWCA 의류심의 위원, 정미숙 동해Y 상담원, 김영옥 성남Y 상담원이 각각 수상했다.

2019 세계 YWCA-YMCA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



YWCA-YMCA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가 11월 1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한국YMCA전국연맹 주관으로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 110여 명이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친목을 다졌다. 세계YWCA와 세계YMCA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해 1주일을 평화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해마다 연합예배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11월 10일(일)부터 17일(일)까지 '청년, 젠더평등을 위한 교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기도주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참조)

제29회 YWCA 세계대회



YWCA 세계대회가 11월 17일(토)부터 11월 22일(금)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되었다. 세계 70여 국에서 약 500명의 YWCA 대표들이 참석하여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변혁하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국가와 세대 간 자유로운 소통의 축제가 열렸다. 한국YWCA는 세계 YWCA 부회장과 공천위원, 청년대표 5명, 대구Y, 대전Y, 서

울Y, 인천Y, 전주Y, 청주Y, 연합회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를 포함하여 21명이 참여했다.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이 세계YWCA 부회장으로,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이 세계YWCA 공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9회 세계대회에서도 세계YWCA 이사들 중 60% 이상이 젊은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특별히 기존 세계YWCA 현장에 명시된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 내용을 한국YWCA가 아시아 YWCA회원국과 함께 지켜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2020-2023 전략계획은 이후 4년 간 실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6~33쪽 참조)

YWCA 장기요양기관협의회 제주 연수



올해 4분기 YWCA장기요양기관협의회 센터장 연수가 11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제주에서 열렸다. 전국 11개 가운데 9개 장기요양기관이 모인 이번 모임에서 장기요양기관센터장들은 복지환경 다변화와 YWCA 재구조에 따른 현장 대응 정책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엔젤방문요양기관, 탐나라공화국, 산굼부리 등을 견학하며, 도전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워크숍



'2019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워크숍'이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깊은산속우당샘아침편지명상센터에서 24개 센터 약 110여 명의 실무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는 명상을 통한 심, 벤치마킹, 네트워킹을 목표로, 최만자 위원(연합회

100년사위원회)이 '한국 여성직업개발 역사에서 YWCA 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내용으로 기조 강연했다. 최 위원은 Y 여성운동의 산실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대의식을 갖고 창의적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여성주의 시각이 철저한가? 저소득층 우선의 프로그램인가? 사회 공동체적 행동인가? Y의 역사와 전통에 얼마만큼 부합하는가?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적 의미를 갖는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여성직업개발을 통한 여성운동의 맥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매년 1회 개최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워크숍은 2020년부터 직무역량강화워크숍으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다.

불의날 캠페인



제246차, 제247차 불의날 탈핵캠페인이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 4호기 폐쇄'를 주제로 11월 26일(화), 12월 17일(화)에 연합회 회관 앞에서 열렸다. 11월 캠페인에는 남양주YWCA 부속시설장 및 실무활동가 8명, 인천YWCA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7명, 청주YWCA 실무활동가 5명, 연합회 실무활동가 등 총 21명이 참석했으며 12월 캠페인은 연합회 실무활동가가 주관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빛 1, 3, 4호기 위험성을 알리며, 정부가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고, 3, 4호기를 폐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11월 2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대상은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성평등 부문상은 <KBS 스페셜> '2018 여성, 거리에서 외치다'가, 생명 부문상은 EBS <배워서 남줄래> 자해하기 싫어요, 미워하지 마 자해하지 마 편이, 정의·평화 부문상은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가, 특별상은 <EBS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제8



부 지금, 여기 유일한 편이 수상했다. 수상하는 제작진, 연합회 위원, 실행위원,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5~37쪽 참조)

연합회 펍핀 교육



2019년 연합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펍핀 교육이 남양주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0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6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으로 구성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수업을 진행했다. 조영미 강사(수원 핑크머니)가 펍핀 1차시 모의수업 워크숍과 강의를 하고, 태블릿 PC로 QR코드를 찍어서 경제 퀴즈 풀기, 연합회에서 개발한 교육용 어플 'FL Shopper'로 아이템 구입하기 등을 체험했다. 또한 폐가죽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2회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제2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가 12월 6일(금) 남산 문학의집에서 열렸다. 새로운 금융경제교육 콘텐츠와 교수법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안선영 경남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가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주제로

연합회 소식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경남지역경제교육센터팀이 동일 주제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씽크머니를 활용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기여한 논산YWCA, 서울YWCA, 창원YWCA가 우수 회원YWCA로, 목포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가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 김필레리더십캠프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필레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9 김필레리더십캠프가 12월 17일(화)부터 18일(수)



까지 군산YWCA 및 군산일대에서 열렸다. 정신여중 학생 29명이 참여해 정신학교 교사이자 선배였던 김필레 선생을 기억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근대역사 속 여성독립활동가 김필레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여성리더십 특강,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청년활동가와 만남, 놀이를 통한 역사미션활동, 우리가 꿈꾸는 학교만들기 워크숍, 동국사 및 역사박물관 탐방을 했다. 12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는 정신여고 학생 24명이 참여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19. 10. 1 ~ 2019. 11.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 인	정정화 신영희	20,000
회원YWCA	부산YWCA	400,000
모금액	1922바자회	6,965,500
10월~11월 모금액		7,385,500
누계		18,014,624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10. 1 ~ 2019. 11.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19. 10. 1 ~ 2019. 11. 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들람수렌,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은실, 박인희,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욱,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채정희,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615,000
개인 기부	이행대, 최아이크, 익명	23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하늘가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460,000
기관 및 단체	명성약국, 르뽁(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에세레젤라또(명동점), 전광수커피, 해피빈기부금	51,860
합계		4,356,860
총액		30,799,468

회원YWCA 소식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공감' 워크숍



고양YWCA는 11월 19일(화) 파주 지지향하우스에서 민·관이 함께 구성된 고양여성네트워크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성의 삶, 길을 모색하다'란 주제로 고양시 여성단체들, 공무원, 시의원 60여 명이 참여해 고양시 성주류화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 성인지 관점의 안전골든벨, 육구강도 프로파일, 2기 여성친화도시 설계를 위한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다. 1기 여성친화도시를 진단하고 2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YMCA-YWCA 친선연합예배



남양주YWCA는 11월 18일(월) 남양주YMCA 주관으로 YMCA-YWCA 친선연합예배를 드렸다. '청년,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설교와 찬양, 기도를 통해 YMCA와 YWCA가 성평등한 사회와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부천YWCA는 에코스쿨 환경프로그램으로 '대장들넉 환경탐방'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논습지의 가치 및 중요성을 알



리는 활동을 하였다. 부천YWCA를 비롯한 23개 지역시민사회, 연구단체들이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모임을 만들어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논습지인 대장들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선정되어 11월 22일(금) 시상식에 참여했다.

성남YWCA

홍성애 부장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송년회



성남YWCA는 12월 10일(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송년회를 진행했다. 저녁 만찬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60여 명의 돌봄조합원들이 참석해 올 한해 사업을 공유하고, 돌봄회원 시상식을 가졌다. 또한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시간을 마련해 위로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사랑의 김장담그기



수원YWCA는 11월 21일(목) '2019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진행하고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3백 50개 가정에 김치를 전

회원YWCA 소식

달했다. 이번 나눔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도로공사 개량사업단·수원지사·수도권건설사업단, (주)코레일유통 경기본부가 지원했다. 5개 기관의 임직원과 수원YWCA회원 등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3천5백kg의 김치를 전달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적정기술 아이디어 발표회'



안산YWCA 본부 강당에서 11월 16일(토) '청소년이 만드는 적정기술 아이디어 발표회'가 열렸다. 적정기술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찾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정기술과 연계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2019 큰장날



안양YWCA는 10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안양시 동안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2019 안양YWCA 큰장날을 열었다. 가정폭력피해자와 여성인권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먹을거리와 후원품을 판매하고, 지난 1년간 모은 중고품 등을 나누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었다.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 봉사자들이 현장에 나와 사람의 온기를 나누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2019년 찾아가는 소비자 인형극장

의정부YWCA는 경기북부지역 내 소비취약계층(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등)의 올바른 소비 경제 인식개선을 위해 25개 기관을 선발하여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11월 15일(금) 새말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소비자 인형극장을 열었다. 주인공 늑대할아버지가 홍보관을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관절약을 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과정과 손자 용달이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내용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인형극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한끼나눔



파주YWCA는 11월 8일(금) 주사랑교회(금촌동)에서 '파주 YWCA 한끼나눔' 후원행사를 진행했다. 약 700명이 참석하여 샌드위치, 호박죽, 떡, 김밥에 과일과 각종 음료 등 식사를 함께 나누는 한편, 바자회, 노래공연과 음악연주가 함께 어우러진 뜻 깊은 행사였다. 이번 행사로 지역에 파주 YWCA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소비자교육



하남YWCA는 11월 5일(화)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사기, 파밍, 스미싱, 보이스 피싱과 금융서비스,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알려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피해예방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업사이클링 체험부스



거제YWCA는 11월 26일(화) 거제대학교 카페마린에서 대학YWCA 동아리 K·E·Y(koje enjoy ywca)와 함께 업사이클링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명의 거제대학생들과 함께 폐현수막 화분 만들기, 산업폐기물 양말목으로 컵받침 만들기,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이어폰저리 밴드와 팔찌를 만들며 불필요한 쓰레기는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재사용, 재활용,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홀로어르신 돕기 일일카페테리아



김해YWCA는 10월 24일(목) 회관에서 홀로어르신을 돕기 위한 일일카페테리아를 열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YWCA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일일카페테리아는, 지역의 홀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500여 명의 김해시민들이 함께했으며 행사를 통해 모인 성금은 김해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해 홀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 내의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앞산아래 별별마켓



대구YWCA는 10월 26일(토) 행복한 나눔이 있는 '앞산아래 별별마켓'을 진행했다. 대구 남구에서 진행된 할로윈 축제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덕분에 별별마켓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대구 YWCA를 알리며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탐나는 3대(三代) 패밀리



마산YWCA는 11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세대 간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부모-부모-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현대사회에서 약화되었던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고 가족력 및 유대감을 강화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창립73주년 기념음악회

부산YWCA는 10월 31일(목) KBS 부산홀에서 부산YWCA 창립73주년 기념음악회 'VOS콘서트-퇴근하고 여기 어때?'를 열었다. VOS 콘서트를 보기 위한 관객들로 가득 찬 이날 연영, 세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무대를 즐기고,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시



간이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연극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교육



사천YWCA는 10월 5일(토)부터 어린이집 원아 대상 연극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교육 '미세먼지 감돌이의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 사천YWCA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습관형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미세먼지 연극단을 구성하여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양산YWCA

'어쩌다 연극' 자선공연



양산YWCA는 11월 16일(토) 쌍벽루아트홀 공연장에서 '어쩌다 연극' 자선공연 <미연이 출생 비화>(선옥현작)를 열었다. 이날 공연을 위해 양산YWCA는 지난 5월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 안의 숨은 보물찾기'란 주제로 연극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해왔다.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아

마추어 배우들이 섬세한 감정표현을 잘 이끌어 냈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건강한 먹거리 체험



울산YWCA는 11월 16일(토) 환경지기단 학생 22명과 4명의 보조교사가 계절떡·유과만들기 체험을 위해 다개떡방으로 떠났다. 떡을 빚고, 유과청 만들기를 통해 건강한 우리 먹거리에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울산YWCA환경지기단은 환경사랑과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초등학교 4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월, 자연·생태체험을 위한 만들기 체험과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애들아 밥먹자



진주YWCA는 11월 5일(화) 진주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진양고등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 재료를 활용해 삼각김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진주YWCA는 진주혁신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동들과 함께하는 숲체험,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해YWCA 이재경 부장

월화수목금토일 착한 에너지캠페인

진해YWCA는 11월 9일(토), 16일(토) 길마켓과 여좌천 마을 만들기 축제장에서 에너지시민연대 후원으로 '월화수목금토일 겨울철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명과 난방의 효율적인 사용법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방



법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했다. 진해구민들과 Y-틴 동아리들이 참여해 환경정화활동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100인의 정치 토크쇼



창원YWCA는 11월 5일(화)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실시했다. '정치 환경의 변화 구현! 여성의 참여로!'라는 주제로 창원시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참여를 통해 정치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열의 속에 원탁 토론회를 잘 마무리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업사이클링 캠페인



통영YWCA는 10월 26일(토)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열었다. 경상남도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배우고 체험하는 에코스쿨'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페트병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만들기', '폐와이셔츠를 활용한 머리방울 만들기'를 진행했다.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흐름을 느

끼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영YWCA는 친환경 사회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애들아, 밥먹자!'



포항YWCA는 11월 7일(목) 임직원 및 NH농협 포항시지부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대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쌀로 만든 꿀백설기와 요구르트 2천여 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격려하고,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2007년부터 매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제31회 회원대회



강릉YWCA는 10월 31일(목) 경포호수 잔디공원에서 제31회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8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 후 8개 팀으로 나누어 경포호수를 걸으며 미션을 수행했다. 화합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동해YWCA 김보람 간사

해양진로박람회

동해YWCA는 10월 16일(수) 동해실내체육관에서 '동해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해양진로박람회Ocean Dream'를 개최



했다. 동해시가 주최하고 동해진로지원체험센터 꿈꾸징과 공공선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 미래의 보고인 해양을 주제로 다양한 해양직업정보를 제공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Access 영어캠프



서울YWCA는 미 국무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한꿈학교'에서 Access(English Access Microscholarship Program)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11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서울YWCA 회관에서 영어캠프를 열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느끼며 조금씩 향상 되어가는 실력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활동가연수



속초YWCA는 11월 6일(수) 2019 활동가연수를 진행했다. 속초YWCA 활동가들은 양화진에 방문해 선교사들의 삶을 추모하고 이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뮤지컬 관람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원주YWCA 플리마켓



원주YWCA는 11월 9일(토) AK플라자 원주점 광장에서 'AK플라자와 함께하는 원주YWCA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이날 수익금 전체는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하반기 이사영성훈련



춘천YWCA는 11월 11일(월) 2019년 하반기 이사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목적문 영성훈련 교재를 토대로 이천진 목사님이 YWCA 회원운동과 시민운동, 정체성 등을 강의했다. 춘천YWCA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김장 나눔 행사



광양YWCA는 11월 26일(화) 포스코 내 제철복지회대식당에서 포스코와 함께 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거

울나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로 김장 2천5백 포기를 독거 어르신, 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광주YWCA 윤정순 관장

사랑의 금융교육



광주YWCA는 11월 15일(금) 대광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인 광주은행학교 초등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적응을 위한 금융교육으로 6개 체험부스를 통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출산의 소중함과 바른먹거리 체험



남원YWCA 아이낳기좋은세상남원시운동본부는 11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남원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몸은 소중한요'를 진행했다. 몸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보고, 출산과정, 성장기 몸 변화, 임신·출산·육아체험, 자궁방 체험,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체험을 통해 출산의 소중함과 바른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목포YWCA 박수현 국장

2019년 목포YWCA-YMCA공동기도회 목포YWCA는 세계YWCA-YMCA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을 맞아 11월 19일(화)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YWCA-YMCA 이사와 실무자 70여 명이 함께 모여 '청년, 젠더평등을 위해 권력 구조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공동기도회



를 가졌다. 이날 공동기도회는 목포YMCA주관으로 송귀옥 영락교회 담임목사님이 '주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으며 기도시간을 가졌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팀장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서귀포YWCA는 11월 5일(화) 서귀포YWCA 강당에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학습 체험공간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장으로 사회적기업활성화 제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들과 제주도민이 참여했다.

순천YWCA 손모아 주임

이사연수회



순천YWCA는 11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진도썰비치에서 '자연과 문화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이사연수회를 가졌다. 명예이사 2명, 이사 16명, 활동가 5명이 참여한 이번 이사연수회에는 자연관광, 문화공연, 주제강연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었다.

여수YWCA

김혜영 간사

전직원 연수



여수YWCA는 11월 8일(금) 본부와 부속시설 전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전라북도 순창 강천산 산행을 함께하며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 교류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Y활동가로서 정체성을 제고하는 시간이었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2019 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익산YWCA에서는 전라북도 청소년성취포상제 및 두볼페스타를 10월 19일(토) 개최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 두명(이의현 고1, 최지예 중3)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한명(최지원 초5)이 포상 받았다. 포상담당관은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과 섬진강 자전거 92km 종주와 1박2일 동안 함께 한 활동을 통해 자기성장을 이루고자 힘썼던 시간이 오늘의 결과가 되었다.”며 포상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2019 '여세 서포터즈' 활동보고회



전주YWCA는 11월 14일(목) '여세 서포터즈'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여세 서포터즈'는 지난

8월 13일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주제별 토론, 전주 선미촌 실태와 성매매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날 활동보고회를 했다. 그리고 서포터즈들의 발표와 소감을 나누었다. *여세란: 어떤 일을 치른 다음의 나머지 세력이나 기세의 사전적 의미.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의 줄임말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2019 이웃사랑바자회



제주YWCA는 11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한 '2019 이웃사랑바자회'에 참여했다. 제주MBC,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희망원이 함께 마련한 행사로 제주YWCA는 '방과후아카데미 시설환경 개선' 수익금 마련을 위해 요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했다.

중부

논산YWCA

조아영 간사

제1회 회원만마당



논산YWCA는 12월 10일(화) NS웨딩홀에서 제1회 회원만마당을 개최했다. 회원대회 개최 원년의 해로, 회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축제 마당으로 진행했다. 돌봄과 살림 활동 회원,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녁 만찬, 우수 회원 시상 및 웃음으로 소통하는 레크레이션으로 책임감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 전달식

대전YWCA는 11월 6일(수)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 전달



식을 가졌다. 사랑뜰어린이집(대전 동구 관암동) 원생들이 1년간 열심히 모은 동전으로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세종YWCA

허미정 부장

통신서비스이용 스마트하게 캠페인



세종YWCA는 11월 2일(토)부터 27일(수)까지 한국소비자재단이 주관하는 '통신서비스이용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총 8회(청소년 4회, 고령자 2회, 다문화주부, 일반주부)에 걸쳐 진행했다.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뜰폰 사용 패턴에 따른 요금제 안내와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사랑의 도배봉사



제천YWC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와 함께 11월 6일(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읍면지역 저소득 독거어르신 두 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천YWCA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여 돌보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천안YWCA

강규희 부장

창립 30주년 기념 후원음악회

천안YWCA가 11월 5일(화) 천안시청 봉사홀에서 관계의 회복,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동행 You are not alone'을 주제



로 천안시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가해 창립 30주년 기념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가수 최성수가 함께했다. 후원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천안YWCA의 목적사업과 부속시설 운영지원,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탈북 청소년 멘토링 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여성공감콘서트



청주YWCA는 11월 21일(목) '이유 있는 수다 세상을 뒤집는 몸축제 여성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유있는수다 프로젝트는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여성의 몸과 환경에 대해 여성주의관점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색하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실무자 워크숍



충주YWCA는 11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2019 충주YWCA 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제천 배론성지와 단양에서 친목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에는 'Work/Walk With US' 시간으로 2019년도 사업평가와 2020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YWCA 목적문에 맞는 충주YWCA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1·2	
북한어린이돕기운동		3	
1953년 Y-틴 허령회 갖고 클럽협의회 조직		4	
YWCA 기념우표	편집실	5	1
나라와 민족을 위한 365일 철야기도		6	
한일YWCA협의회		7·8	
TV모니터운동		9·10	
YWCA 세계대회		11·12	

■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지금 여기, 우리를 성찰하자	김은주	1·2	
생명의 봄기운 가득한 한반도를 꿈꾸며	장미란	3	
평화, 탈핵, 성평등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한영수	4	
새로운 구조로 100주년 향하는 YWCA	원영희	5	4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이은영	6	
오래된 미래로 Y는 사람이다	조은영	7·8	
우리 모두의 미션은 창의적인 변화입니다	이종임	9·10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주님	한미미	11·12	

■ 말씀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종화	1·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윤재	3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안수경	4	
'정상가족' 이후의 가족	이숙진	5	5
전쟁과 여성	이숙진	6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구하기	김성희	7·8	
내 주님은 어디에	박선희	9·10	

■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현장	이주영	1·2	6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편집실	1·2	8
회원YWCA 신입회장·5부지역위원장 소개	편집실	1·2	10
2019 신년예배 YWCA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편집실	1·2	14
31운동은 청년여성들의 투쟁으로 가능했다	윤정란	3	6
한국교회, 31운동정신 회복해야	정경일	3	8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	이숙진	3	10
손을 잡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정지석	4	6
여성참여로 한반도 평화정착 앞당긴다	크리스틴안	4	8
'민의 참여' 플랫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신승민	4	10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를 잇다	편집실	4	12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향한 6년의 시도	김은경	5	6
남녀임금격차는 구조적 문제다	김예지	5	8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편집실	5	10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 Women Economic Empowerment in Asia	최형미	7·8	6
아시아청년포럼	김수진	7·8	10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2019년 태백산	편집실	9·10	6
사진으로 보는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태백산'	편집실	9·10	8
포용과 인정, 평화통일의 시작이다	편집실	9·10	10
2019 YWCA 성탄예배	편집실	11·12	5
사진으로 보는 2019 한국YWCA	편집실	11·12	7
2019 YWCA 10대 뉴스	편집실	11·12	11

■ 칼럼, 강연

제목	필자	월	쪽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 시민장 영결식	문윤희	1·2	18
한반도 평화체제 돌파구 찾기	최수산나	3	12
미투와 선거제도 개혁	권수현	3	14
서울권 총학생회 전멸	김민주	3	1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	류민희	4	16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과 먹거리를 지켜야	안재훈	4	18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 떼지 못한 리본	임주현	4	20
우리가 잘 몰랐던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김성혜	4	24
2019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YWCA	손병덕	5	12
새로운 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 여성에게서 길을 찾자	김은주	5	14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최소영	5	16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소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이유진	5	18
고준위핵폐기물 현황과 과제	이현석	6	6
'장학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가해자는 어디에	김보화	6	8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한국YWCA 과제	박충구	6	19
비영리조직 그리고 사회적경제	김기태	7·8	12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양이원영	7·8	14
남북 그리스도인과 세계교회들의 화해와 일치의 길	최수산나	7·8	16
성폭력 무고사건 현황과 과제	이하나	7·8	18
자본주의의 페르소나 : 소비사회와 윤리적 삶	양권석	9·10	13
2019 YWCA 에너지전환 강사 아카데미	최지영	9·10	16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연대의 발걸음	최수산나	9·10	18
평화를 위해 여성이 일한다	한미미	9·10	19
'영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닝에게 묻다'	홍하늘	9·10	20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가치 변환	이택광	11·12	17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시대, 위기의 책임을 묻는다	김현우	11·12	20
살해당하는 여성들: 여성혐오와 젠더에 기반한 폭력	허민숙	11·12	22

■ 인터뷰, 대담·좌담

제목	필자	월	쪽
청년토크 저출산'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대학·청년Y	1·2	20
20대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운동	대학·청년Y	3	18
애들이 그곳에선 행복해야해	대학·청년Y	4	22
'플라스틱 디톡스' 우리 모두 함께하자!	대학·청년Y	5	20

지구를 지키는 청년들	이지현 차민규 김광식	6	10
안사요 안가요!	대학·청년Y	7·8	20
알쓸신잡	대학·청년Y	11·12	24

■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문상순	1·2	16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박성연	1·2	22
Y-틴 전국협의회 총회	신연진	1·2	24
YWCA 키다리학교는 나를 성장하게 한다	박찬희	1·2	26
연합회 중점운동구 통합위원회 실험 현장	배정미	1·2	28
제63차 여성지위위원회CSW63	김예지	3	20
후쿠시마 8주기 핵으로부터의 탈출 '나비 퍼레이드'	최지영	3	22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4	28
제1차 길 위의 평화포럼	편집실	4	31
강원도 산물 피해 복구 지원금 전달	편집실	4	33
YWCA 청소년 운동, 우리가 이끈다	임진아	4	34
제1차 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워크숍	문윤희	5	22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최수산나	5	24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발족 기자간담회와 5.24토론회	정서연	5	26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	편집실	6	12
2019 YWCA 돌봄직종담당 실무자 워크숍	편집실	6	14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정식	편집실	6	16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	편집실	6	18
제1차 YWCA 미래가치포럼	편집실	7·8	23
제4차 길 위의 평화포럼	박혜진	7·8	26
대학·청년YWCA 전국회원대회	이수진	7·8	28
드림십 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세상	류한비	7·8	30
2019년 히로시마 평화순례: 우리가 평화가 되자	신연진	7·8	32
Y-틴 지역별 회원대회: '있잖아, 너의 가능성은 충분히'	최선화	7·8	34

2019 한국YWCA 정책협의회	편집실	9·10	22
제5차 길 위의 평화포럼	엄에스터	9·10	24
제1차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아카데미	성혜란	9·10	26
제2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정현주	9·10	28
싱크머니 '팝핀' 수업	홍수진	9·10	30
제29회 YWCA 세계대회	홍현정	11·12	26
사진으로 보는 YWCA 세계대회	편집실	11·12	30
청년, 오늘의 리더	백혜진	11·12	29
여성 청년리더 되기, YWCA와 함께 시작하다	이수진	11·12	30
세계YWCA-YMCA 국제친선 연합예배	김은영	11·12	34
제23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편집실	11·12	35
2019 Y-틴 정책토론회	이예림	11·12	38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제목	필자	월	쪽
전국 탈핵캠페인	편집실	3	24
교회 언니들의 불금파티	김예리	3	26
전국 38 여성의 날 이모저모	편집실	3	28
고익순 나눔장학금 장학생	양지혜	5	37

이달의 포커스

제목	필자	월	쪽
한국YWCA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예배·역사관 '이제' 개관	편집실	4	26
혐오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다시보다	김민주	5	28
허구에서 떨쳐나온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역사, 최윤신	이윤숙	5	30
87년 민주항쟁과 그 이후	김향	6	24
YWCA역사관 '이제'를 만나다	차경애	6	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서울 기림비 제막식	편집실	7·8	38
YWCA 초기역사인물 황애덕	이윤숙	9·10	32

온라인 '여세' 아카데미	돌람수렌	9·10	36
군산YWCA 창립총회	박은정	11·12	4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영화 <가버나움>	정의영	1·2	30
영화 <그린북>	이윤숙	3	30
영화 <생일>	백보람	4	36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	김난주	5	32
영화 <기생충>	정덕현	6	28
영화 <주전장>	이윤숙	7·8	36
성별의 장벽을 허물자 발아진 일: 젠더프리 캐스팅 연극	김민주	9·10	34
'미투' 운동 이후 한국 드라마 속 여성 서사	오수경	11·12	40

논평 및 성명서

제목	필자	월	쪽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YWCA 논평		3	37
[평화선언문] 4.27 DMZ 민(民)+평화 손잡기		4	14
[입장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4	15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반평화적 조치들에 대한 한국 YWCA의 입장		7·8	22
2019 YWCA 평화선언문		9·10	12
세계대회 결의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11·12	29



“M건강보험 앱 서비스 안내”

증명서 팩스 발급

지사에 가지 않아도,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증명서를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차상위분인부담감경증명서

보험료 납부 서비스

건강·연금보험료를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대납(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신청

국민참여·민원상담

공단 업무에 제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24시간 열려있는 소통채널입니다.

- 국민제안, 국민토론포럼
- 민원상담, 직원 친절/불친절, 이사장과의 대화, 모바일 개선의견



M건강보험 이용방법



Google Play



App Store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